



비아그라(Viagra)를 말한다

신재용

프롤로그

피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약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경구용 피임약(Oral contraceptives, specially hormonal contraceptives)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약물이다. 호르몬제제로써의 경구용 피임약에 대한 개념은 1927년 오스트리아의 생리학자인 Haberlandt에 의해 제안되었다.(Haberlandt, et al. 1927) 본격적인 약물은 1959년 FDA의 허가를 받은 ENOVID®가 처음이다. 하지만, 복용이 보편화된 것은 여러가지 건강상의 유익과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된 80년대 중반이후인데, 현재는 가임기 여성의 상당수가 성관계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되었다.

경구용 피임약의 일반적인 사용은 여성의 성(性)을 임신으로부터 분리시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만의 혹은 남성의 끊임없는 공여(供與)를 가능케하는 자산(property)으로 만들었다. 이 자산(property)이 우리 문화속에서 현재 마음껏 소비되며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들이다.

패션은 생선에 비유되곤 한다. 유행에 살고 유행에 죽는 패션을 설명하는 데 없이 좋은 비유이다. 유행을 타는 것은 비단 패션 뿐만이 아니다. 식생활과 관련된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첨단을 걷는다는 학문에 이르기까지 유행이란 상존한다. 의약품도 예외는 아니다. 몇해전 유행했던 토코페롤제제나 스쿠알렌 함유제제, 현미추출물 제제, 그리고 DHEA와 살빼는 약까지 한번쯤은 복용해 보았을만큼 한 때 각광을 받던 '잘 나가던 스타약'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제들의 대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의약품이기 보다는 건강식품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물론 '건강식품류'만이 의약품 시장에 있어서 유행의 주류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은 시대를 표현한다. 과거 10년 사이 유행을 탔던 의약품들은 분명 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반영이다.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제들, 특히 식생활의 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들에 대한 치료제나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기든스의 지적처럼 현대가 삶과 관련된 것의 대부분이 '신체 양생법과 통합된 사회'이기 때문이다.(기든스, 1993) 신체를 가꾸고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일이 개인의 정체성과 라이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프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현대에 있어서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리라 기대하는 의약품이 각광받는다라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Drug - Viagra (R) : sildenafil citrate

1998년 3월 FDA(USA)의 판매승인을 얻은 비아그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성적담론이 지배인 문화, 단순한 담론의 차원을 넘어서 일상생활이 이러한 담론 아래 재구성되어진 시대. 이 시대를 '비아그라'만큼 몸소 뛰어다니는 약물은 없다. 클린턴과 르윈스키가 '부도덕한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비아그라는 FDA의 '정기검사' 대비에 분주했고, 스타검사의 폭로가 극에 달할 때, 자신의 고객들에게 황홀한 기쁨을 가져다 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일년 내내 헐리우드 스타들과 상원의원까지 가담한 '호객 행위'로 미국인들을 자극하더니, 공식적인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던 우리 나라의 경우까지 '보지도 못한 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녹용¹⁾을 대치할 정력제라도 되는 양 사람들의 기대를 이상한 방향으로 부풀렸고, 남대문동에서 웃돈을 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돌았다. 지방 특산품을 진상하던 우리의 고유 풍습 때문인지 물 건너온 '파란색' 알약을 뇌물로 사용하기도 하고, 술집등에서 특별한 손님을 위한 접대용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소식도 들렸다.

여하튼, 이와같은 '팬들의 극성'으로 인해 호황을 누리는 곳은 제조사인 '화이자(Pfizer Inc.)이다. 포브지(FORBES)는 '화이자'(Pfizer Inc.)가 98년 한해동안 810억 달러(전년 대비 13% 성장)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에는 비아그라 한품목에서만 14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다. 물론 지난 해의 매출신장은 비아그라의 판매로 직접적인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비아그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재고와 이로 인한 매출의 상승이라고 보는 편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말이다.(FORBES, Jan 11, 1999)

하지만, 쾌재를 부르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타락한 욕망'이다. 비아그라가 비정상적인 사회속에서 사육된 우리의 변태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구세주로 칭송하도록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나치기는 하지만, 새롭고 신기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의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은 솔직히 너무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내 자신도 어떻게든 한번은 그 좋다는(?) 약효를 경험하고 싶어하니까). 이와 같은 점이 바로 우리를 비아그라와 긴장점에 놓게 한다. '마음의 욕정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푸른색의 다이몬드형 필름코팅정(film-coated tablet)인 성분명 'Sildenafil citrate'는 분자량(m.w)이 666.7, 물에 대한 용해도가 3.5 mg/ml인 백색 결정(분말상)의 화합물이다. 화학구조적으로는 Imidazole Ring과 Piperazine Ring이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개발초기에는(Dr. Lan Osterloh의 지휘하에) 심장질환으로 인한 흉통의 경감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하지만, 약효 테스트중 부작용(side effect)으로 나타난 발기현상(erection)을 주목한 연구팀은, 이를 제제화하여 상품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삼류 성인 영화의 단골 소재이던 발기부전(Erectile dysfunction, 이하 ED)이 이 약물의 주된 적응증이다. NIH(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 이하 NIH)는 이 약물을 ED(Erectile Dysfunction: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최초의 경구용 약물이라고 발표했다. (NIH, 1998) 물론 이 약 이전에도 ED치료를 위한 약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추(척수)흥분 알카로이드(Yohimbine)나 혈액 순환촉진제(Pentoxifilline, Phenotolamine), 항우울

제(Traodon, Fluoxetine, Amitriptyline), 혹은 성호르몬 생산촉진제(Solcosplen)나 남성호르몬 (Testosterone)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약물들 대부분은 현재도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Yohimbine(Yocon, Yohimex)이나 Phentolamine(Vasomax)등은 비아그라와 같이 복용이 간편한 경구용제제로 제형화되어 있다.²⁾

여하튼 비아그라는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따라 주지 않던 사람’의 소원을 들어 주는 약물이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혹은 ‘그렇더라도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않다.

NIH의 93년 보고서는 ED를 ‘남녀 모두가 만족스러운 정도의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발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발기가 되더라도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성생활 중 25% 이상 일어나는 때를 지칭하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NIH, 1993) 93년 현재 미국내에서만 약 3000만명이 ED환자일 것으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8%에 해당하는 숫자로 성생활을 하고있는 성인 남성만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메사추세트에서 행해진 조사는 좀 더 현실적인 통계에 가까운 것 같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40세 이상 70세미만의 성인남성으로 한정했는데 대상자인 1290명중 약52%가 ED로 인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eldman HA et al, 1994) 무좀을 제외하고, ED만큼 절반이 넘는 남성들이 앓고 있는 심각한 질병(?)은 없을 것이다. 수년전만해도 이 질병의 90%이상은 정신적인(psychic)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알콜남용, 걱정 혹은 낙심들의 심리적인 질병. 심혈관 질환, 당뇨병, 호르몬 이상이나 분비장애, 고혈압, 말초혈관장애, 신장 혹은 간장애, 담배, 수술후유증(골반등), 성기자체의 병변 그리고 교통사고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많이 복용하는 약물들, 예를들어 고혈압치료제, 각성제, 항부정맥제, 항정신병약, 이노제, 그리고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Aspirin등)이나 항히스타민제(H1 & H2 receptor blocker)등의 과용 혹은 남용도 ED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기질적인(organic) 원인과 정신적인(psychic)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ED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Benet AE, 1995, Relay Al, 1997, Cara Lawless, 1998)

ED를 호전시키는 Sildenafil의 작용기전(mechanism) 조금 독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용기전이 Sildenafil을 다른 약물과 구별시키는 특이한 성질을 만들어낸다.: 성적 충동이 있어야 약효가 나타난다.

남성생식기는 Corpora cavernosa(음핵해면체)와 midventral corpus spongiosum,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펀지와 비슷한 Cavernosal tissue에는 Cavernous Artry에서 뿜어나온 많은 동맥들(Helicine arteries)이 분포하고 있다. 발기는 Corpus smooth muscle이 이완(relaxation)되면서 Cavernous Artry로 혈액이 공급되어 Helicine Arteries안으로 혈액이 흘러 들어갈 때 일어난다. Cavernosal tissue가 부풀어 오르면서 성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강직도를 가진 상태가 된다. 따라서, 혈관자체가 손상되지 않는 한 발기는 Corpus smooth muscle의 이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Corpus smooth muscle의 이완은 Nitric Oxide(이하 NO)라는 물질에 의해 매개된다고 알려져 있다.(Burnet AL, 1997) NO는 혈관의 내피세포등에서 분비 확산(diffusion)되는 기체상의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로써 과거에는 EDRF(Endothelial Derived Releasing Factor)로 알려졌던 물질이다.

이 물질은 부교감신경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NOS(nitric oxide synthase)에 의해 Arginine으로 부터 합성되며 이렇게 합성된 NO는 혈관평활근(vascular smooth muscle)로 확산되어 GC(Guanyl cyclase)라는 효소를 자극하게 된다. 이때 활성화된 GC(activated GC)는 GTP(guanosine triphosphate)를 cGMP(cyclic guanosine monophosphate)로 변화시킨다 (Ignarro LJ, 198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cGMP는 세포내의 칼슘농도를 낮추어서 actin과 myosin을 이완킴으로써 Corpus Smooth Muscle을 이완(relaxation)시킨다. 이와 같은 작용을 하는 cGMP는 PDE (phosphodiesterase)에 의해 GMP(guanosin monophosphate)로 분해되어 그 활성이 저해되는데, 남성생식기에는 PDE5(phosphodiesterase type 5)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Boolell M, et al. 1996). Sildenafil은 cGMP의 인산에스터결합(Phosphodiester linkage)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인 PDE5를 선택적(selectively, 4000배이상)으로 저해함으로써 cGMP의 분해를 억제하여 Corpus Cavemosum내의 cGMP의 농도를 유지, 평활근(smooth muscle)을 이완시킴으로써 발기(erection)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적 충동이 있어야 약효를 보이는 Sildenafil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성적인 흥분이 부교감신경계(최근에는 NANC: nonadrenergic and non cholinergic)를 통해 전달되어 음핵해면체에서 NO를 경유한 cGMP를 생성시켜야만 이 약물은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아그라의 가장 큰 매력은 복용상의 간편함이다.

‘일을 벌리기’ 한시간 내지는 반시간 전에 영양제를 먹듯 꿀꺽하면 그만이다. 이는 Sildenafil이 경구투여에 의해 신속하게 흡수되어 30분 내지 120분(median 60분)에서 혈중최고 농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약물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의해 관리되어야할 전문의약품이다. 미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한 정당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다르다. 사실 전문 의료인이 필요없어 보이는 곳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비아그라의 남용이 걱정되는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자.

비아그라를 슈퍼마켓의 진열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이유는 몇가지 점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이다. Sildenafil은 생체내에서 약물분해 효소인 CYP3A4(cytochrome P450)를 통해 대사된다. 따라서, 이 효소의 저해제(Inhibitor)인 Macrolide계열의 항생제(erythromycin)이나 Imidazole Ring을 가진 항진균제(antifungal/ itraconazole, ketoconazole) 혹은 항궤양치료약인 Cimetidine(비선택적 저해제)등과 함께 복용할 때에는 약물상호 작용에 의해 혈중 농도의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주의해야할 점은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와의 병용이다. 특히 협심증등의 피로를 위해 사용되는 Nitroglycerin류의 항협심증약이나 ACE 저해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혹은 α -억제제(α -receptor blocker)등과의 고혈압치료제 등과의 병용투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혈압강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금기(contraindication)로 되어 있다 (Pfizer, 1998).

비아그라의 복용 후에 발행한 사망의 대부분은 이러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FDA의 통계에 의하면, 판매승인 후 삼개월동안(98.3-6) 약 300만건의 처방전이 발행되었고, 복용과 관련한 사망자가 123명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중 원인이 불분명한 54명을 제외하면, Sildenafil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망자는 69명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중 대부분이 심혈관계 질

환을 병력으로 가진 환자들이었다 (FDA, 1998).

이러한 점들 때문에 미국내에서는 FDA의 허가가 너무 빠르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신약허가에 통상 3년 내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할 때 6개월이란 기간(97년 9월 22일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시장판매 허가를 신청했고 이듬해인 3월 27일 FDA는 이를 전격 승인했다)은 너무 짧다. 이점에 대해서는 6월(99년)판매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고해야할 문제이다.

여하튼, 어떠한 이유에서건 '재미 한번의 보려고 했던 것치고는 너무 가혹한 댓가'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포스트마케팅(post-marketing)에서 나타난 치사율(약 0.002%)만으로 약의 안전성 여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리 적합하지는 않다. 일례로, 삼대 명약(아스피린, 페니실린, 몰핀)중의 하나인 아스피린의 경우 가장 큰 부작용으로 알려진 Reye's syndrome의 발병률이 0.02%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Reye's syndrome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4세미만의 소아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했을 경우 발생하는 질병으로 치사율이 약 25%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단순한 산술적인 통계로 보더라도 아스피린 복용시 0.005%정도는 Reye's syndrome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아그라와 비교하면 이 수치는 훨씬 높다. 하지만, 누구도 아스피린을 위험한 약이라거나 생명을 걸고 먹어야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작용(Reye's syndrome)을 일으키는 경우에 유의하기만 하면된다.³⁾

그렇더라도 단순히 '재수 나쁘면 봉변을 당하기 때문에 비아그라는 무섭고도 나쁜 약'이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을 보편적인 약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떤 약도 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보다는 신중하지 못한 처방을 내리는 의사나 책임있는 투약지도를 하지 못하는 약사, 혹은 처방이 없었는데도 또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용한 환자들등 '질나쁜 사람들' 때문에 무섭게 느껴지는 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정말 운이 없는 경우'는 생각만큼 그리 많다.

매일 먹는 밥이 아니라면 어느 것이나 그렇듯, Sildenafil도 부작용(adversr effect)을 나타낸다. 사실 죽음이라는 개인적 종말의 문제보다도 현실적으로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수록 고통스런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삶들에 대한 바램이 증가하는 현실과 이는 무관하지 않다. 남용될 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약들은 주로 전문가에 의해 다루어져야하는 약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아그라의 경우는 더더욱 의사나 약사의 통제하에 사용되어야할 제한요건이 많다. 주된 부작용은 앞서 제기한 갑작스런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심장마비나 심근경색(myocardial Imfaction), 심실부정맥(ventricular arrhythmia)등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거나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고혈압(BP)170/110) 혹은 저혈압(BP(90/50)인 환자는 사용을 피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시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질환인 색소성망막염(retinitis pigmentosa)의 병력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심혈관계 부작용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 부작용인 구토, 어지러움, 두통, 코막힘, 설사등도 관찰되었다. 시장 판매후 나타난 부작용으로는 간질이나 불안등의 신경계 부작용과 지속적인 발기(prolonged erection: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는 것), 음경강직증(Priapism)등의 요생식기계의 부작용등과 함께 가벼운 형태의 시각장애가 보고 되었다 (Pfizer, 1998).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0달러를 상회하는 그 작은 것을 손에 넣기 위해 그토록 성화인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탁월한 효과 때문이다.

FDA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Sildenafil은 성행위를 시도하는 횟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기능 장애에 뚜렷한 호전을 가져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⁴⁾ 약 1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는, Sildenafil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2주동안 성관계를 성공한 횟수가 1.3회로, Placebo(위약효과)의 0.4회에 비해 약 3배 이상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체 성행위중 66%의 경우에서 만족할만한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이에 비해 Placebo의 경우는 약 20%정도에 불과하다) 장기간에 걸친 투여에 의한 효과는 더욱 놀랍다. Long-Term Study(1년)의 경우 환자의 88%에서 호전이 관찰되었다⁵⁾(Pfizer Inc, 1998).

하지만, 공인기관의 과학적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심적인 불편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약리학적 안전성 이외의 또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Culture 1

현실적으로 비아그라의 사용이 단순히 환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다. 이미 환자가 아닌 정상인이, 심지어 중년 남성도 아닌 젊은이들이 비아그라를 찾고 있다. 우리의 문화는 비아그라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든스는 그의 책 '성, 사랑, 에로티시즘'에서 성적인 행동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현대와 같은 사회로의 변형을 설명한다. 그는 릴리언 러빈(Lillian Rubin)의 연구를 인용하는데, 여성에게 있어서 처녀성을 간직해야한다는 의식이 사라지게된 점과, 더 이상 순진함은 여성의 매력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적극적인 성적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는 점등을 언급하면서, '지난 수년간 남녀간의 관계에서 거의 놀란만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의식변화의 또다른 예로, 러셀의 연구 대상이었던 10대들의 대부분이 '남색행위(sodomy)'로 법전에 규정된 오럴섹스(oral sex)를 당연한 듯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제시하기도 한다.(기든스, 1996) 기든스의 설명은 결코 방탕한 10대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사회 일반인의 의식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의 구조변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대의 젊은 여성과 40대의 점잖은 정치인이 일으킨 하나의 해프닝이라거나 뒷골목에서 위협적으로 행해지는 성폭력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일상사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성은 결코 이 시대에 무시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빨간 마후라의 주인공들'이나 장난 삼아 비디오를 찍었다는 'O양'등은 사회 일각의 타락한 모습이라기 보다는 사회 일반의 일상적인 모습 -이러한 분석이 지나치다면 적어도 심리적 바램에 대한 반영- 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이미 우리 사회의 대부분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 단지 실천에 옮길만한 용기가 부족할 뿐이다. 아니면 여건이 허락하지 않던지. 보드리야르의 지적처럼 이런 문화적 환경은 '포르노'마저 그 기능을 상실한 절망적인 상황임에 틀림없다.(보드리야르, 1998) 은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가상의 외설스러움이 현실에서 이미 실현된 이상, 포르노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성적 흥분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헐리우드를 배회하던 노랑나비' 사진을 음란물로 취급하던 언론이 있던가? 어떠한 포즈를 취했다라도 그것은 더이상 '외설'이 아닌 '예술'이

었다.

이쯤되면, '성적 혁명' 운운하는 메스컴의 환호를 들으며 비아그라가 각지에서 '필요 이상의 대접'(남용)을 받게 될 소지는 충분하다.

Culture 2

정신과 문화가 이 정도의 '광기'에 휩쓸려 있다면 이미 관세를 뒤집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점은 '고삐풀린 망아지'를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둘 튼튼한 말뚝이나 동아줄마저도 없다는 사실이다. 앞서 설명한 바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의 진단과 처방등이나 약사의 복약지도와 투약상담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본인도 아닌, 한 다리를 건넌 사람을 통해, 오직 건네 들은 몇몇 증상에 의지해 약을 지을 줄 알아야 '명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임대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집주인도 모르는 꼴이다. 건강에는 그렇게 관심을 쏟으면서, 정작 약에 대해서만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컬할 정도이다. 하지만, 정작 전문가로써 환자들을 돌보고 지도해야할 의료인들 스스로가 처방과 복약지도등에 관한 고유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깊이있는 의학적, 약학적 지식이 아니라 약이 투여되는 인격을 가진 개체으로써의 개인이 최소한 유의해야할 정보를 받는 것이리라.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약물이 불필요하게 투여된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의료 행위의 당사자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사려깊고 책임있는 행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일 것이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비아그라의 남용은 불보듯 뻔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약의 본질적인 역할은 질병을 치료하여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동양의학(좀더 정확하게는 고대동양의학)이 이야기하는 바처럼 기(氣)와 같은 신비스런 힘이 있는 성스러운 것(?)도 깊은 산중에서 '신봤다'고 소리칠만큼 신성한 것도 아니다. 통칭 약이라 불리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기계에 기름을 치고 부품을 교환하는 것 혹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이상의 무엇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약을 설명할 수는 없다. 질병은 분명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피폐하게 한다. 삶의 가치가 불분명해지고, 그 의미를 쉽게 잊어버리게도 한다. 따라서, 질병의 치료는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어둡던 얼굴에 작은 미소를 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환자 뿐만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약'은 비정상적인 우주속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신의 선물이다.

비아그라가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처럼 비아그라는 남용될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주변 여건은 이러한 끼를 발동시키려 한다. 따라서, 비아그라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선도하기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의료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수정하는 거시적인 해법은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우리의 일상사와 관련하여, 특히 의료행위에 가담하는 각각의 주체로써의 삶과 관련하여 맡은

바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첫째는, 개업의사 혹은 임상사들의 몫으로써 비아그라의 처방을 분명한 테두리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ED라는 질병으로 인해 섹스의 감정적인 부분을 다룰 수 없었던 부부들에게만 이 약은 진정한 가치가 있다. 이는 섹스가 부부관계 안에서만 가장 안전하며,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다고 부부라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비아그라가 영양제나 정력제가 아닌 치료제이다. 따라서, 권위있는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테두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을 의사들이 먼저 인식해야 한다. 가령, ED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부부가 함께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방을 발행한다면 어떨까 싶다. 다양한 지혜로운 시도들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개국약사 혹은 임상약사들 몫으로써 비아그라의 판매를 의사의 처방을 받은 사람에만 제한하는 것이다. 솔직히 지금처럼 매상과 직결되는 일이라면 달라는 것마다 아무 생각없이 집어주는 약사는 약장사지 약사가 아니다. 약에 대한 전문가로써 약의 조제나 판매등과 관련된 실제적인 책임은 약사에게 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계처럼 조제만 하는 것도, 개중에 싼 약을 환자에게 권해주는 것도 올바른 약사의 모습은 아니다. 약과 관련된 환자의 부작용을 살피고, 의사의 처방상의 오류를 검토하며, 올바른 복용지도와 투약관리를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들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약사이다. 따라서, 비아그라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거나 남용가능성이 있는 약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도 약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의약분업 시대속에서는 이러한 약사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비아그라에 대한 칼자루는 분명 약사가 쥐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인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다.

어떤 면에서는 말을 잘 듣는 학생과도 같아야 할 때가 있다. 정상적인 '환자역할'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우리사회에는 더더욱 요구된다. 물론 의사나 약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선결된다는 조건에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을 듯하다.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분명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Epilogue

비아그라가 가져올 영향력은 과거 경구용피임약이 가져왔던 것 이상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다룬다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다. 하지만, '비아그라'의 남용가능성은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문제이다. 화이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시장에 파고든 이상 단순히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판매 자체를 봉쇄하는 일들은 매우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이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떠 넘겨진 것이나 다름없다.

좋은 약은 결코 제약회사 연구원에 의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 그리고 환자간의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비아그라가 부디 인류사에 남을 명약으로 만들어지기를.

〈참고문헌〉

- Benet AE, melman A. Urol Clin North Am. 1995; 22(4): 699-709
- Boolell M, Allen ML, Ballard SA, et al. Int J Impot Res. 1996;8:47-52
- Buolell M, et al, Int J Impot Res, 1996:8:47-52
- Burnet AL. J Urol 1997,;157:320-324
- Cara Lawless, Oral medications in the management of erectile dysfunction, JABFP, 1998, 11(4), 307-314
- David F. Mobley et al, When patients request the impotence pill, Postgrad Med, 1998, 104(2), 55-66
- FDA, FDA approves impotence pill Viagra, FDA talk paper, Mar 27, 1998
- FDA, Postmarketing safety of sildenafil citrate(Viagra) & Summary of reports of death in viagra users received from marketing(late March) though July 1998, July 22, 1998
- Feldman HA et al, Impotence and its medical and psychosocial correlates: Results of the Massachusetts Male Aging Study, J Urol 1994:151:54-61
- Gina Kolata, Drugs that deliver more than originally promised, The NewYork Times, April 5, 1998
- Haberlandt, L. Uber hormonale sterilisierung weiblicher tiere, Munch. Med. Wochenschr. 1927, 49-55. cited at Goodman & Gilman's The basis of phamacological therapeutics(9th):1431-1432
- Ignarro LJ, Lippton H, Edwards JC., et al. J Pharmacol Exp Ther. 1981;218(3):739-749
- Jane Brondy, Facing Viagra's emotional ripples, The NewYork Times, Mar. 22, 1998
- Jane Brondy, Sour Note in the Viagra symphony, The NewYork Times, May 19, 1998
- NIH consensus development panel on impotence. NIH Consensus Conference: Impotence, JAMA, 1993;270:83-90
- Pfizer Inc. VIAGRA(sildenafil citrate), Nov, 1998
- Pfizer Inc. Viagra(unpublished paper), 1998
- Riley Al, Athanasiadis L. Br J Clin Pract. 1997;51 (2) 99-105
- Rober A. Kloner, Viagra: what every physician should know, ENT, 1998,77(9), 783-786
- 안토니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황정미역, 새물결, 1996
- 안토니기든스,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권기돈역, 새물결, 1991
- 장보드리아르, 보드리아르의 문화읽기, 배영달역, 백의, 1998
- 성인경, 아담과 문화를 논할 때, 낮은 울타리, 1998

- 1) 녹용은 주로 신양부족(腎陽不足)을 치료하는 보양약(補陽藥)으로 사용한다, 한방에서는 신(腎)과 성(性)을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강장제 혹은 정력제로써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 녹용, 인삼 소비량의 90% 이상이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내 생각에는, 비아그라를 ED치료를 위한 최초의 경구용제제라고 한 것은 두가지 이유에서인 것 같다. 둘 다 비아그라의 독특한 작용기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는 (뒤어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발기와 직접 관련된 Phosphodiesterase를 Sildenafil은 직접 저해(Inhibitor)하는데, 다른 제제들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발기를 유발시키거나 지속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다른 한가지는 다른 경구용제제들과는 달리 성적인 충동이 있을 때에만 약효가 나타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기존 약물들과는 달리 '심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점은 비아그라가 기존의 약물들과 가장 다른 점이기도 하다
- 3) 물론 아스피린은 지난 100년 이상의 기간동안 세계각처에서 수많은 임상자료와 연구결과들이 수집된 유일무이한 약이다. 어느 약도 아스피린만큼 그 작용과 효능, 부작용이 알려진 약이 없을 만큼 방대한 데이터들을 가진 아스피린이기에 단순한 수치상의 비교를 통해 비아그라의 안전성 문제를 단정할 수 있는 비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 4) 이점은 비아그라가 처음제로써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비아그라는 저하된 성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적으로 성욕을 자극하지는 않는다.
- 5) 아직 여성에 대한 효과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는 보고되지 않았다. FDA의 허가를 위해 화이자가 제출한 관련자료들도 남성의 것에 국한되어 있다. 현재 화이자는 여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여성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지금까지보다 더 큰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된다.